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실의 규칙과 의례*

윤 갑 정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Rules and Rituals for Creating Multicultural Classroom Community in the Preschool

Yoon, Gab-Jung
Daegu Haany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Abstract〉

Purpose: This research examined types of the rules and rituals used in preschool classroom for creating a multicultural classroom community. **Method:** The study was designed as a case study. The research classroom is a 5 years of age class has 8 boys and 12 girls, which has one Mongolian-Korean boy and the others are Korean children in a preschool, K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via classroom participant observations, interview with a teacher, an Mongolian-Korean boy, his mother, preschool director and documents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by conducting content and meaning analysi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IRB approval for participants. **Results:** The classroom rules and rituals for creating multicultural classroom community were first, 'rules and everyday rituals to define the roles as a member and order of classroom community'. There are included 'everyday luxury greeting', 'every Monday morning prayer', 'classroom rules that children made', and 'listening attitude chant in the circle time'. Second, 'peer interaction rituals to experience 'weness' emotions', which are included 'signal to gather peers and start off play', 'funny birthday party' and 'imitating a friend's humorous language and behavior'. **Conclusion:** This results provided implications that classroom rules and rituals enable children to have experiences such things not only togetherness, order in the classroom and but also emotions with pleasure and weness as tools for creating multicultural classroom community.

Key words : Multicultural Classroom Community, Rules, Rituals, Multicultural Education, Young Children

* 본 연구는 2019년 Europ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EECERA) 국제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으로 확장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Yoon, Gab-Jung. Daegu Haany University, Dept. of Child Welfare, Haanyero 1, Gyeongsan,
Korea, e-mail: gyoon3@dhu.ac.kr

I. 서론

국내 거주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8년 기준 186만 1,084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3.6%에 이르며(행정안전부, 2018), 국내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2007년 142,015명에서 2017년 330,188명으로 증가하였다(다누리통계포털, 2020). 그 중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민자는 2018년 12월 기준 159,206명으로 2017년 155,457명보다 2.4% 증가하였으며(법무부, 2019), 2017년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115,085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약 52%를 차지하였다(다누리통계포털, 2020).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들 중 57%는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김은영, 문무경, 김문희, 박수연, 2010)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는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실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유아교육현장과 학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기관생활 적응과 또래관계, 언어발달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적응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해왔다.

국내 다문화교육은 학교현장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로 인한 필요에 의해 대두되기 시작하여(교육과학기술부, 2007), 문화적·인종적 배경과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구성원의 다문화 태도 형성을 목표로 정책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유아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반편견 교육(김영옥, 1998)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07년 유치원 교육과정 교사용 지침서에 ‘다문화가정 유아’가 등장하면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다양한 다문화교육 실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 발달 연구 초기에는 개별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을 참여 관찰하여 이들의 적응 양상을 탐색하였고(구수연, 2007; 서현, 이승은, 2007; 윤갑정, 고은경, 2006) 점차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과 실천에 대한 연구(박미경, 이승연, 2008; 정대현, 장지영, 2009; 윤갑정, 김미정, 2010)로 확장되다가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을 위한 현장 실험연구(견주연, 2013; 박찬옥, 황지영, 2017), 적응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영향요인들을 밝히는 양적연구들(박화순, 2018; 손유자, 2017; 이은숙, 박형신, 2017)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런데 일련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개인의 적응을 이들의 언어발달과 또래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유아가 생활하는 교실의 환경과 분위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 등 교실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적응은 한시적이고 일방적인 개념이 아닌 연속적이며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Lazarus, 1976; 오문자, 이방실, 이유나, 2012, 재인용)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생활하는 교실의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관계적 측면에서의 적응, 즉 교실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어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교실공동체의 한 주체가 되어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이며(윤갑정, 손환희, 2018), 이를 통해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상호존중과 관용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서정애(2017)는 다문화교육이 인권교육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현장의 유아다문화교육은 여전히 인권감수성 증진 효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하면서 소수자와 다수자의 상호교류 관계를 중시하는 상호문화주의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윤갑정(2015)은 유아다문화교육이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되는 교육으로 서로의 문화가 만나 문화적 차이가 교차하고 재배치되며 협상되는 in-between 공간이 되기 위해 교실을 다문화학습 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실공간은 몸과 마음이 만나는 진정한 이해의 공간,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공간, 정서적 공감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문화, 협력, 정체성 형성, 편견, 평등성, 다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김영옥, 2002), 다문화교실 만들기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목적이 실현가능하며(윤갑정, 2012) 다문화교육은 교육과정 개혁과 학교문화 형성 운동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의 실천은 곧 다문화공동체 형성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한편, 교육공동체란 구성원들 간의 상호 돌봄과 배움이 일어나는 공동체로(한대동, 2004), 최근 학교교육의 차가운 현실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실현이 강조되고 있다. 정계숙, 윤갑정, 박희경(2016)은 바람직한 유아교육공동체의 모습으로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상호 돌봄과 배움의 관계를 통해 구성원 서로의 생명성을 복돋우어 생명의 성질과 기운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따뜻함을 나누는 공동체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따뜻함은 우리나라의 ‘정(情)’과 ‘우리의식’에 깊이 스며있는 속성으로, 한국인에게 정(情)은 인간관계에서의 일종의 유대감으로 정이 넘쳐날 때 행복하고 인간답게 산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고미숙, 2014). 이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정과 우리의식이 작동하여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눌 때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따뜻한 유아교육공동체의 특성인 상호 돌봄과 배움, 정과 우리의식, 따뜻한 온기의 나눔 등은 다문화교육에서도 지향하는 상호존중과 반 편견을 통한 진정한 이해, 돌봄과 평등, 정서적 공감과 관계형성, 소수자의 주체화와 다수자의 변화 등과 연결되며 이에 진정한 다문화교육의 실현은 다문화교육공동체의 구현으로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유아를 교실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고 교실공동체 형성을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과 발달, 나아가 다문화교육의 실천방향을 탐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서현, 2010; 염지숙, 2011, 2013). 서현(2010)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을 위해 교사와 부모 및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하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염지숙(2011)도 다문화유아를 위한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마을 전체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교사의 교수실천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다문화 교실공동체는 소수자의 주체화뿐 아니라 다수자의 변화와 교사의 다문화교육과정 실행이 일어나고, 돌봄, 대화, 존중, 협력의 공동체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염지숙, 2013). 일련의 연구들은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사의 교수실천과 다문화 교실공동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유아 다문화교실에서 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엇이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실현을 위해 교실 규칙과 의례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실운영관리를 위한 도구들 중 규칙(rules)은 학생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로 학기 초에 교실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기대를 보여주는 긍정적 진술문들로 구성되며 교실에서의 대화 방식과 문제해결에 사용되는 교실 생활의 기준들이 된다(Charney, 1997). 이러한 규칙들은 아이들에게 교실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즐거움과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반응적이고 돌봄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낸다(Charney, Clayton, & Wood, 1997). 그리고 의례(rituals)는 일상적으로 행해오던 관습과 전통, 이벤트 등과 유사한 용어로, 학문적 접근에 따라 그 개념은 다양하나 의례가 다른 방식의 행위들과 구별되는 다섯 가지 기준(Michaels, 2012)을 살펴보면 의례 행위가 교육적 행위와 해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첫째, 인과적 변화로 일상의 의례는 생애사적, 신체적, 연령적 변화를 가져오며 또한 이런 변화들이 의례를 발생시킨다. 둘째, 형식적 결정으로 매일의 의례 행위 속에서 관습적 행위들이 만들어진다. 셋째, 의례적 행위는 형식적이며 정형화되고 반복적이다. 넷째, 의례는 외부의 형식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의도나 정서와 내부 기준에 따른다. 다섯째, 정체성, 역할, 지위, 권위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의례의 특성들을 학교 교실로 가져오면 의례는 교사에 의해 학생들의 신체적, 생애사적 변화를 기념하기 위해 일어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즉 의례 행위 자체를 하나의 교육적 행위로 접근할 수 있음을 말한다. Fite(2005)는 교실에서 의례적 행동을 일으키는 피라미드를 제안하면서 ‘절차, 반복되는 일과, 항상 하는 습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된 행동인 전통, 기념식과 같은 세러모니, 그리고 미리 정해진 패턴에 따라 의식을 모으는 의례’로 위계화 하였는데 이러한 의례의 위계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얻게 되며 자기자각과 교실공동체를 만든다고 하였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의례의 개념과 활용에 대한 윤갑정(2016)의 연구에서는 의례를 ‘특별한 연례행사’,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활동’, ‘아이들과의 신호와 규칙’으로 개념화하고 의례가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질서와 사회적 규범 학습을 도우며 축하와 기념의 의미와 학부모와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유아교실에서 의례는 교사가 교수 실재를 구조화시키고 수업의 많은 요구들을 간소화하는데 유용하며(Maloney, 2000)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활동의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Fite & Garcia, 2007).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하나의 교육적 행위로서 의례와 규칙이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의례와 규칙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교실에서 유아 다문화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유아 다문화교실을 교육공동체 형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에 활용될 수 있는 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이 어떻게 유아들에게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유아다문화교실공동체 형성을 위

한 도구로써 교실의 규칙과 의례의 가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문제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실의 규칙과 의례의 종류는 어떠한가?
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기관 및 학급

연구 참여 어린이집은 K시에 소재한 법인어린이집으로 ‘사랑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는 교육철학과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만 2세부터 5세까지 99명의 영유아와 17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 참여 교실인 민들레 반은 어린이집에서 한 반 뿐인 만 5세 반으로, 교사 1명이 유아 20명(남아 8명, 여아 12명)과 생활하며 그 중 다문화가정 남아 준호(가명)가 있다. 민들레 반 교실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큰 교실이며 누리과정에 따라 놀이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매주 목요일 점심 식사 후 2시 간 동안 가까운 캠퍼스의 숲에 가서 숲 놀이를 진행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1) 현장 참여관찰

민들레 반의 참여관찰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준호가 가족과 몽골을 다녀 온 한 달을 제외한 약 6개월 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교실 규칙과 의례는 Skutil, Jandosova, & Makovickova (2012)이 제시한 환영, 작별, 교육, 축하의례 범주에 따라 교실 의례를 분류하고, 그 외 교실 운영의 규칙과 유아들 간의 또래 상호작용의 규칙과 행동들(Collins, 2004/2009)도 교실 규칙과 의례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교실 규칙과 의례는 ‘환영 인사’, ‘작별 인사’, ‘교실 규칙’, ‘대소집단 활동 시 노래나 동작’, ‘축하 혹은 기념행사나 활동들’, ‘또래 상호작용 규칙들’ 등이 포함되었다. 관찰 전 온라인 유아교실 놀이영상으로 두 관찰자의 관찰방법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훈련하였으며, 본 관찰에서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원이 각각 주 1회씩 요일을 달리하여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누어 약 2시간~2시간 30분간 교실에서 관찰하였다. 관찰은 교실 일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반복되는 규칙과 의례들로, 주로 등원, 자유놀이, 이야기나누기, 하원시간, 생일축하시간, 숲 놀이 시간 유아들의 언어와 행동들이었으며, 이러한 규칙과 의례들이 어떻게 민들레 반에서 수행되고 이를 통해 유아들은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상촬영은 하지 않고 관찰내용을 관찰수첩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관찰이 마친 후, 곧바로 관찰수첩을 토대로 관찰일지를 완성하고 그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추후

관찰내용 등은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였다. 관찰 이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관찰 내용을 점검하고 회의 혹은 관찰도중 떠오르는 질문들은 메모 후 필요에 따라 원감이나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보조 자료로 학급의 활동계획안과 가정통신문이 수집되었다. 연구는 본 연구자의 소속대학 부속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후 진행되었다.

2) 면담

(1) 담임교사 면담

담임교사는 경력이 5년차인 20대 후반으로, 관찰 당시 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과정 중에 있었다. 처음 준호의 담임을 맡았으며, 다문화교육은 반편견 교육으로 이해하고 준호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교사와의 면담은 2018년 5월 23일과 10월 11일 두 차례 방과 후 교실에서 각각 2시간 30분 정도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들은 ‘교실에서 의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학기에 준호가 ‘우리 반’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나 활동, 혹은 교실의 규칙들이 있습니까?’, ‘민들레 반 아이들이 놀이나 활동을 할 때 특별한 신호나 규칙이 있습니까?’ 와 같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공동체 경험과 교실 규칙과 의례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IRB 내용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하에 면담내용은 녹음되었다.

(2) 다문화가정 유아 면담

준호는 어머니가 몽골인이며, 아버지가 한국인으로, 만 2세부터 본 어린이집에 다녔고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었다. 준호와의 면담은 2018년 10월 30일 방과 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동석하여 20분 정도 진행되었다. 질문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재미있는 활동은 무엇이니?’,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 ‘교실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놀이에서의 규칙이 있니?’, ‘생일파티 할 때 기분은 어때?’ 등으로 또래관계와 공동체 경험, 교실 규칙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IRB 내용에 따라 유아용 연구 참여 설명서와 동의서 작성이 학부모의 서명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3) 다문화가정 유아 어머니 면담

준호 어머니는 몽골에서 남편을 만나 7년 교제 후에 2011년 몽골에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으며 연구 참여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어머니와의 면담은 2018년 7월 12일 민들레 반 교실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은 ‘준호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준호가 친구들과 친해지고 어린이집에 잘 적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들이 있습니까?’, ‘준호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등으로 자녀의 기관생활과 적응, 자녀의

또래관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와 양육관 등이었다. IRB 내용에 따라 동의서 작성과 면담 내용은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4) 원감 면담

원감은 연구 참여 당시 원감경력이 6년차이며, 5년의 교사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원감과의 면담은 2018년 6월 5일 오후 원장실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은 ‘기관의 역사와 운영철학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기관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의례와 행사들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유아 준호의 어린이집 생활과 어머니의 기관 참여도는 어떠합니까?’ 등으로 기관 의례와 공동체경험에 대한 내용이었다. IRB 내용에 따라 연구동의서 작성과 면담내용은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관찰 자료와 면담자료들, 그 외 학급 활동계획안 등은 일반적인 질적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즉, 자료를 전사하고 주제별 코딩을 한 다음, 도출된 주제어들에 따른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Bogdan & Biklen, 2006). 먼저, 관찰과 면담 내용들을 전사하여 읽어가면서 민들레 반의 교실의례 목록을 도출하였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는 애국조례, 입학식, 졸업식 등과 같은 특별한 연례행사, 아침모임과 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아이들과 함께 만든 신호나 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윤갑정, 2016). 따라서 공식화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례들과 공식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지만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의례와 규칙들을 모두 추출해내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교실 규칙과 의례들은 ‘등원 후 출석부 도장 찍기’, ‘등원 후 책가방 사물함에 넣고 선생님께 인사하기’, ‘화장실 앞에 길게 앉아 줄 서기’, ‘점심 식사 전 감사노래’, ‘생일 축하파티 노래와 사진촬영’, ‘숲 놀이에서 반복되는 놀이 구호’, ‘수료식과 입학식’, ‘매주 월요일 오전기도’, ‘이야기나누기 시간 경청자 세’ 등이었다. 둘째, 추출된 의례의 목록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학급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례를 통한 교실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즉 의례를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신체적 접촉, 언어적 상호작용, 웃음, 표정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즐거움’, ‘놀이’, ‘경험 공유’, ‘축하’, ‘질서’ 등이 의례를 통해 경험되는 주제어로 도출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유아와 민들레 반 유아들의 상호작용 양상과 교실 의례와 규칙이 궁극적으로 다문화 교실공동체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의례와 공동체성에 관련된 Wulf(2012)와 또래 상호작용 의례에 대한 Collins(2004/2009)의 이론적 틀을 가지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용된 규칙과 의례들은 ‘교실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하는 교실 규칙과 의례’, “우리”의 정

서를 경험하게 하는 또래 상호작용 의례'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관찰, 면담, 학급 활동계획안 등 다양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자료원천을 활용하기 위해 원감, 교사,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와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교육 질적 연구 전문가 2인과 참여 교사에게 e-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검증과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교실공동체의 특성들(존중, 협력 등)과 우리문화에서의 공동체의 특성(우리성, 따뜻한 정)이 결과해석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받아 '개인의 성장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례'를 삭제하고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는 의례'에 생일파티를 넣어 주제어를 수정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 민들레 반에서는 '교실공동체의 질서와 역할을 규정하는 규칙과 일상 의례',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또래 상호작용 의례'가 다문화 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었다.

1. 교실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하는 규칙과 일상의례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의례에 의해 만들어지며 의례는 주어진 집단 내에서 개인의 가치, 태도, 생각들을 표현하게 하는 반복적인 퍼포먼스나 액션들이다(Maloney, 2000). 또한 의례는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상징적 액션들로,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관계를 강화시키며 집단의 응집력에 기여한다(Zita & Stasova, 1999). 이처럼 민들레 반에서 아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의례와 학급 규칙을 통해 어린이집 생활에서의 질서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역할을 배우고 있었다. 여기에는 '매일 만나고 헤어질 때의 명품인사', '매주 월요일 아침 기도', '우리 반의 규칙', '이야기나누기 시간의 경청자세 찬트'가 포함되었다.

1) 매일 만나고 헤어질 때의 명품인사

민들레 반은 매일 만나고 헤어질 때 '명품인사'를 하였다. 이것은 자신감 발표수업 교사연수에 서 배운 인사 문구들로, 교실의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 인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큰 소리로 인사를 외치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마치는 시간의 질서를 확인하였으며, 매달 바뀌는 인사문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도 파악하고 있었다.

아침 이야기나누기 시간이다.

교사: “공수, 인사!” (두 손을 모아 배 위에 놓고, 아이들을 쳐다보며)

아이들: (두 손을 모아 배 위에 놓으며 큰 목소리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월월월월~” (노래를 선창하자)

아이들: (다함께 노래를 부른다) “월월월월 달월입니다. 화화화화 불화입니다. 수수수수 물수입니
다. 목목목목 나무목이요. 금금금금 쇠금입니다. 토토토토 흙토입니다. 일일일일 날일입
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교사: “쇠금 금요일입니다.”

유아: “쇠금 금요일입니다.”

교사: (오늘 일과표를 손으로 가리키며) “오늘은 여름 활동지, 간식, 미술, 악기 바이올린, 귀가입
니다.”

유아A: “귀가? 웬 귀가?”

유아B: (A를 쳐다보며 웃는다) “하하하”

교사: “오늘은 이렇게 활동할거예요!”

아이들: “네!”

(2018.07.20. 교실관찰)

아이들이 영어체육수업을 마친 후 교실로 돌아오자

교사: (아이들을 보며) “매트 위에 앉으세요. 인사하고 마치자.”

아이들: (자기 자리에 앉는다)

교사: “여러분, 6월 6일은 무슨 날인지 알아요? 현충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힘쓰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우리는 충혼탑에 가서 국화꽃 두고 감사합니다. 할 예
정이예요.”

아이들: “네~”

교사: “자, 인사하고 마치고요, 인사! ‘공!수!’”

유아C: (교사에게) “선생님 인사 바꿨었죠?”

교사: “네, 맞아요! 6월은 칭찬을 잘하는 어린이지요?”

(아이들을 쳐다보며) “다시, 공!수!”

아이들: (큰 목소리로) “칭찬을 잘 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며) “선생님, 안
녕히 계세요.”

교사: (고개 숙여 인사하며) “네, 안녕히 가세요.”

(2018.06.04. 교실관찰)

자신감 발표교육이라는 연수를 받으며 명품인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인사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그것을 외치면서 아이들에게도 긍정
적인 효과가 오는 것 같아서 유아반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06.05. 원감 면담)

이처럼 민들레 반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명품인사는 교실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환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과 작별하는 의례로써 다문화가정 유아 준호와 친구들은 다 같이 인사말을 외치며 같은 반이라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매주 월요일 아침 기도

매주 월요일 오전 자유선택놀이가 마치면 원의 모든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기도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전교육 시간은 어린이집 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매주 하나씩 전달한다. 민들레 반 아이들은 이 기도시간을 통해 다시 한 주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고 동생들과 같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이 시간이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어린이집의 교훈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활용된다고 하였다.

인성 수업처럼 해서 안전 교육하기 전에 예배처럼 짧게 기도시간을 가져요...(중략) 기도내용은 “월요일 다 같이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양보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버이 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더욱 더 부모님을 높이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안전교육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018.05.23. 교사면담)

저희 할머니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관이 기독교다보니 종교적인 의미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성교육과 아이들끼리 정서적 교감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서 매주 월요일 모든 원아들이 모여서 기도시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교육철학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잠깐 인성교육 차원으로 기도를 하고 일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8.06.05. 원감면담)

종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활동을 통해서 준호가 생각 키우기라고 생각하니 괜찮은 것 같고 준호가 커서 자신이 종교를 갖든 안 갖든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몽골에서는 대부분이 불교나 샤머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습니다...(중략) 한국에서는 보통 효, 예의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몽골에서도 비슷하게 예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2018.07.12. 다문화가정 어머니면담)

이처럼 매주 월요일 모든 유아들이 모이는 기도시간은 같은 장소에 둘러앉아 동일한 행동과 언어로 목소리를 냈으로써 아이들에게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기도시간은 어린이집의 오랜 전통문화로 자리 잡아 아이들에게 안락하고 안전한 기관의 분위기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의례로 활용되고 있었고 다문화가정 유아 준호의 어머니도 이 시간을 종교적 의미보다는

생각을 키우기로 여기며 몽골에서도 예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우리 반의 규칙

민들레 반 교실 게시판에는 ‘우리들의 규칙’이라는 포스터가 붙여있었다. ‘화장실에서 뛰지 않아요.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지 않아요. 교구를 빼앗지 않아요. 복도에서 걸을 때는 살금살금 조심히 걸어가요.’ 이 규칙들은 학기 초에 아이들과 같이 정한 규칙으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는데 지켜야 할 규칙들이었다.

만 5세면 아이들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니깐 학기 초에 우리 반이 지켜야 할 약속을 같이 정하고 같이 써보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은 크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크게 터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과 친구들처럼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2018.05.23. 교사면담)

연구자: “준호는 친구랑 같이 놀 때 약속한 적 있어?”

준호: “음... 우린 약속하는 건 아예 없는데?”

연구자: “친한 친구라서 지켜야 하는 건 없어?”

준호: “약속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연구자: “그럼 준호는 민들레 반 약속은 기억하고 있어?”

준호: “네.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 거요. 화장실에서 뛰지 않는 거요”

연구자: “또 다른 건 없어?”

준호: “어... 기억이 잘 안나요.”

(2018.10.30. 다문화가정 유아 면담)

교사: (종을 두 번 치며) “자, 이제 정리하세요.”

여자 아이들이 역할영역의 교구를 정리하기 시작한다.

은영이와 소현이가 역할영역 교구 하나를 동시에 잡고 서로 치우겠다고 실랑이를 한다.

그 때, 동원이가 은영이와 소현이를 보더니

동원: “야~ 뺏지 마. 싸우지 마. (바닥에 떨어진 교구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 더 있잖아? 우리 반 규칙이 싸우지 않는 거야”

(2018.09.14. 교실관찰)

이처럼 민들레 반 아이들은 학기 초 자신들이 정한 교실 규칙을 게시판에 붙여놓고 보면서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유아 준호 역시 민들레 반의 규칙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교실의 규칙은 민들레 반 아이

들이 친구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 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이야기나누기 시간 경청자세 찬트

민들레 반의 이야기나누기 시간에는 ‘경청자세’라는 찬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찬트는 아이들을 주의 집중시킬 뿐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업을 마칠 때 하는 찬트는 수업의 종료를 알리면서 다음활동으로의 전이를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었다.

꽃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다.

교사: “지난주에 산과 숲에서 꽃을 보고 오는 거 숙제였지요? 한사람 씩 부르면 앞에서 발표해보아요”

아이들: “네!”

교사: “친구들이 발표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아이들: (큰 목소리로) “경!청!자!세!”

교사: “경청자세가 뭐예요?”

아이들: “눈은! 반짝! 귀는! 쫑긋! 허리는! 꼳꼳이! 경(박수)! 청(박수)! 자(박수)! 세(박수)!”

모두 박수치며 경청자세를 외치고 조용히 교사를 쳐다본다.

(2018.04.16. 교실관찰)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나누기를 마친 후

교사: “나는(박수 두 번)!”

아이들: “내가(박수 두 번)!”

교사: “정말(박수 두 번)!”

아이들: “좋다(박수 두 번)!”

교사, 아이들: “노력하는 내가 좋다(박수 두 번)! 도전하는 내가 좋다(박수 두번)! 밝게 웃는 내가 좋다(박수 두 번)!”

교사: “나는(박수 두 번)!”

아이들: “내가(박수 두 번)!”

교사: “정말(박수 두 번)!”

아이들: “좋다(박수 두 번)!”

교사, 아이들: “아자! 아자! 오예!”(오른손을 번쩍 든다)

아이들: (모두 일어나 간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이동한다)

(2018.06.04. 교실관찰)

자신감 수업은 4월 달부터 진행되었는데 ‘경청자세’라고 하면 다들 알아서 해요. 경청자세를

외치고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집중도 더 잘하고, 가끔 자세가 흐트러질 때도 경청자세를 다 같이 외치면 다시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중략) 자신감 수업을 마칠 때 하는 찬트는 아이들이 자신을 칭찬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활동으로 이어지게 해요.

(2018.05.23. 교사면담)

이처럼 이야기나누기 시간의 경청자세 찬트는 아이들이 친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무리할 때의 찬트는 수업의 종료와 다음활동으로의 전이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교실의 일상의례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민들레 반에서 매일, 혹은 매주 반복되는 일상의례와 교실규칙은 아이들에게 교실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와 의미를 제공하고 안정감 있는 교실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또래 상호작용의례

아이들은 성인과 다른 자신들의 의례를 만들어내며 이것은 놀이와 이야기로 나타날지 모른다 (Mortlock, 2015). 교육세팅에서 의례를 연구한 학자 중 McLaren(1987)은 의례적 퍼포먼스가 매일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현된다고 하였다. Collins(2004/2009)는 상호작용 의례 사슬 이론에서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의례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관심의 초점이 공유되고 정서적 합류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인지적 상징이 결부되어 강렬한 집단 소속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민들레 반 아이들은 친구와 놀이를 시작하고 그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 낸 상호작용 의례가 있었다. 여기에는 '친구를 놀이로 부르는 구호', '신나는 생일파티', '친구의 장난을 훔쳐내기'가 포함되었다.

1) 친구를 놀이로 부르는 구호

민들레 반 아이들이 친구들을 놀이로 모을 때는 '○○놀이 할 사람! 여기 여기 다 붙어라~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며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세워서 친구들이 엄지손가락에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 구호는 주로 숲 놀이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친구들과 같이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놀이 할 사람?'하며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둘 만의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놀이 할래?' 혹은 '우리, ○○놀이 하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렇게 친구를 놀이로 부르는 구호는 또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상호작용 의례로 놀이를 통해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숲 놀이가 시작되자,

소현: “누구 수건돌리기 할 사람 여기 여기 다 붙어라.. 10, 9, 8, 7, 6...”
멀리서 준호와 다섯 명의 아이가 달려와 소현이의 엄지 손가락을 잡는다.
교사가 이것을 보고 동그랗게 앉으라고 대형을 만들어주자
여아 세 명이 더 와서 자리에 앉는다.
소현: “5, 4, 3, 2, 1, 땡! 시작한다~ 누가 술래 할래?”
준호: “내가 할래!”
소현: “그래!”
...(중략)
주혁이가 자신의 모자와 수건을 가지고 친구들이 앉아있는 뒤를 달린다.
준호: (주혁에게) “모자만 던져!”
주혁: (준호 말대로 모자만 동원이 앉은 뒤로 던진다)
모자를 잡은 동원이가 달리지 않고 우스꽝스런 행동으로 천천히 걷는 시늉을 한다.
준호: (동원이의 행동을 보며 소리 내어 웃는다) 하하하!
소현: (동원이에게) “야! 빨리 해라~”
다시 동원이가 모자를 들고 동그란 대형 주위를 달린다.

(2018.05.10. 숲 관찰)

준호 모듬 아이들은 점심 배식을 먼저 받아서 자리에 앉는다.
준호: (같은 모듬의 앞에 앉은 도훈이 보며) “권도훈! 나랑 퀴즈 할래?
이 말을 듣고 있던 옆 자리의 영은이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준호가 바로 자신의 손을 영은이 손가락에 붙인다.
준호: (도훈이를 쳐다보며) “권도훈~ 하자~ 응? 하자~”
영은: (도훈이에게 큰 목소리로) “빨리 손 붙어라!”
다른 모듬의 다섯 명의 아이들이 듣고 영은이, 준호의 손가락에 붙는다.
준호: (다른 모듬의 친구들을 보며) “우리 한 팀이네?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 한다. 그 다음은
내 차례!” (차례를 정한다)
도훈: (옆 모듬의 친구들이 오자 쳐다보며) “무슨 놀이? 나도!”
퀴즈 놀이가 시작된다.

(2018.04.06. 교실관찰)

관찰 초기 준호의 자유놀이 공간을 보면, 오른쪽 모퉁이의 쌓기놀이 영역에서 공룡을 가지고
도훈이와 단 둘이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옆의 역할놀이 영역에서 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 중 영은이가 “준호야, 우리 엄마놀이 할래?” 초청을 하면 준호는 “응! 나 아기 할래”
라고 엄마놀이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준호가 여자 아이들과 엄마놀이에 아기 역할을 하게 되
면서 준호의 놀이 공간과 친구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8.06.19. 연구자일지)

준호가 공룡 놀이 이외에는 활동적인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소꿉놀이가 가장

재미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부드럽다 보니까 여자 친구들이랑 친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놀러 가도 형이랑 놀지 않고 누나들이랑 놀고 그러더라구요. 누나들이 감싸주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18.07.12. 다문화가정 어머니면담)

이처럼 민들레 반 아이들이 친구와의 놀이를 시작하기 위해 ‘○○ 놀이 할 사람?’이라고 부르며 주먹을 쥐고 엄지손가락을 드는 퍼포먼스는 민들레 반 아이들이 놀이가 벌어지는 무대에 모두 모이도록 하는 일종의 또래 상호작용 의례로, 공동 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와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 준호는 숲 놀이에서는 놀이 구호로 친구들을 부르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실에서는 같은 모둠인 도훈이와 영은이에게 ‘우리 ○○놀이 할래?’라고 놀이를 제안하기도 하였고 친구의 놀이에 초대받기도 하면서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였다.

2) 신나는 생일파티

민들레 반에서 가장 신나는 시간은 생일축하 파티 시간이다. 생일을 맞은 아이는 풍선으로 만든 왕관과 날개를 달고 꽃다발을 들고 친구들의 축하를 받는 그 날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들은 생일인 친구가 가지고 온 케이크와 음료수를 나눠 마시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웃고 즐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께 먹고 웃으며 축하하는 생일 의례는 모두가 즐거운 정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파티를 준비한다. 교사가 케이크를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지수가 주스를 오른쪽, 왼쪽에 각각 10개씩 올려놓는다. 남자 아이들은 의자를 들고 와서 앉고 여자 아이들은 매트위에 앉는다. 교사는 테이블 뒤 벽에 ‘온 세상이 너의 생일을 축하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건다. 그리고 지수에게 풍선으로 만들어진 모자와 날개를 달아주고 지수는 풍선 꽃다발을 들고 생일 테이블 앞에 선다.

교사: (아이들을 향해) “우리 지수에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자. 시작!”

아이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지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박수를 친다.

교사: “자, 이제 사진 찍자~ 먼저 지수!”

교사는 생일인 지수 독사진을 찍어주고, 후에 여자 아이들과 함께 한 컷 그다음은 남자 아이들을 모두 불러 단체 사진을 찍는다.

교사: (혼자 앉아있는 준호를 보고) “준호야, 이쪽으로 와서 서~”

준호가 지수 옆에 와서 오른손을 브이 표시를 하며 ‘김치’하며 사진을 찍는다. 모두 사진을 찍으며 깔깔거리며 웃는다.

(2018.05.18. 교실관찰)

민들레 반의 생일축하 의례에서 생일을 맞은 유아의 옆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그 친구와의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즉, 생일인 친구가 가지고 온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생일파티는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례이면서 동시에 친구의 애정을 확인하고 같이 웃고 즐기는 시간으로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3) 친구의 장난을 흉내 내기

의례에서의 수행성(performativity)은 마치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처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몸짓과 언어 등의 통합된 퍼포먼스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창조적 모방인 미메시스(mimesis)를 통해 친구의 재미있는 언어와 동작을 흉내 내면서 집단적 의례의 퍼포먼스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창조적 모방인 미메시스는 강렬한 즐거움의 정서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간식 후 준호는 그림책을 하나 가져와 책상에 앉는다.

준호: “영은아, 니가 계속 보는 거 내가 찾았다!”

영은: (준호를 보며) “그래?”

준호: (그림책을 펼치며) “공룡이다!”

영은: (준호 그림책을 보며) “어?”

영은이도 준호가 보는 공룡이 있는 그림책으로 바뀌온다.

준호: (그림만 보더니) “다 봤다 벌써!” (앞에 앉은 도훈이에게 그림책을 준다)

도훈: “어?” (준호처럼 그림만 보면서 빨리 책장을 넘기고는) “나도 다 봤다!” (옆에 앉은 영은이에게 그림책을 준다)

영은: “앵!”(웃으며 금방 책장을 넘기더니 다시 준호에게 그림책을 넘긴다)

준호: (그림책을 받더니 더 빨리 책장을 넘기고 도훈이에게 준다) “하하하”

도훈: “야~ 하하하”(다시 영은이에게 넘긴다)

영은, 도훈, 준호: “하하하하”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소리 내어 웃는다.

(2018.06.07. 교실관찰)

케이크를 먹던 준호는 책상 모서리 쪽에 손가락을 떨어트린다.

준호: (마주 앉은 도훈이에게 떨어진 손가락을 가리키며) “이거 고래다?”

도훈: (손가락을 쳐다보며) “어?”

준호: “우리 집에서 진짜 고래소리 들었다? 우리 집에는 상어 잡아먹는 고래 있다?”

영은: (준호를 보며 놀란 표정으로) “우와! 고래?”

도훈: “우리 집에는 공룡 있다? 상어 잡아먹는 공룡!”

영은: (도훈이를 쳐다보며 웃으며) “공룡? 예잉?”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혀를 내밀며 우스꽝스런 표정을 짓는다)

준호, 도훈: (영은이의 표정을 따라하며 서로 쳐다보며 웃는다) “하하하하”

(2018.04.02. 교실관찰)

이처럼 상호작용 의례에서 아이들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으면서 관심을 공유하고 서로의 신체적 미시 리듬과 정서에 합류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여기서 웃음은 상호작용 의례에서 아이들의 집단적 리듬 합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긍정 정서의 공유는 집단적 열광으로 이어졌다(Collins, 2004/2009). Wulf(2012)는 의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의례 수행과정에서 창조적 모방인 미메시스(mimesis)를 통해 강렬한 정서를 공유하게 되고 이것이 추억을 만들고 다른 공동체와는 구별된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민들레 반에서 준호와 친구들은 또래 상호작용 의례의 미메시스 과정을 통해 즐거움의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경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실공동체의 질서와 역할을 규정하는 규칙과 일상 의례가 다문화교실 유아들에게 어린아 집 생활에서의 질서를 부여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공동체 형성을 도왔다. 매일 만나고 헤어질 때의 명품인사는 교실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을 환영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작별하는 일상 의례이다. 다문화교육은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는 교실분위기를 형성하고 문화적으로 반응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한다(윤갑정, 2011; Ladson-Billings, 1992). 이처럼 민들레 반에서의 명품인사는 모두를 환영하는 의례이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로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의 질서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야기나누기 시간의 경청자세 찬트도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유아 개인의 이야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교실분위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윤갑정(2011)은 미국 다문화유아교실 관찰을 통해 다문화교실에서 in-between 공간을 만드는 작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환영받고 이해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운영하는 교사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공간은 서로의 이질적인 문화가 융해, 혼합, 재구성되는 곳으로 주체와 타자,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이 해체되고 문화적 번역이 일어나는 공간이다(Bahbah, 1994). 이것은 상호 이해와 존중이라는 다문화교육의 목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민의 따뜻한 마음, 서로의 다름에 대한 수용과 용서(정계숙 외, 2016)를 강조하는 따뜻한 유아교육공동체의 핵심역량이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민들레 반의 명품인

사와 경청자세 찬트는 모든 아이들이 환영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를 만드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교실분위기 형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교실 규칙과 의례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학교에서 적절하게 디자인된 의례들은 학생들에게 학교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하며 학교의 가치를 가르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효능감을 갖게 한다(Mullis & Fincher, 1996). 이에 유아교실문화에 의례를 통합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락하고 안정감 있는 교실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도우며 모두가 수용되고 존중받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유아교육에서 의례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연구(윤갑정, 2016; 윤갑정, 이병준, 2014)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의례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현장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둘째,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또래 상호작용 의례가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민들레 반 아이들이 놀이에 친구를 모으는 구호와 친구의 장난스러운 행동을 흉내 내는 것, 생일파티에서 함께 먹고 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들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한 즐거움의 정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Collins(2004/2009)은 상호작용 의례를 통한 정서적 합류가 참여자들에게 강렬한 집단 소속감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같은 공간에서 시선을 맞추기, 함께 웃기, 동작을 창조적으로 모방하기 등의 퍼포먼스가 작동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들레 반 아이들이 ‘우리 같이 놀이할래?’, ‘손가락 브이를 하며 같이 사진 찍기’, ‘친구의 장난을 흉내 내기’ 등의 또래 상호작용 의례들은 친구를 놀이로 끌어들이어 긍정적인 친구관계를 만들게 하였다. 실제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실생활을 관찰한 질적 연구들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의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 제공, 친사회적 기술 습득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행연구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김희태, 권영덕, 2007; 박찬옥, 황지영, 2017; 오영희, 2011). 즉 다문화가정 유아의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이 교실생활의 적응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다문화교육과정 운영과 민감한 교수 실천을 강조해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아들이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또래 상호작용 의례들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최근 윤갑정(2020)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교실의례를 통해 학급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긍정 정서의 공유, 상징의 공유, 기억의 공유’로 해석하였다. 이는 상호작용 의례에서 관심의 초점과 정서적 합류가 일어날 때 인지적 상징이 결부되면서 강렬한 집단 소속감을 경험한다는 점(Collins, 2004/2009)에서 다문화가정 유아와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또래 상호작용 의례들이 어떻게 다문화교실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유아들의 또래관계는 유아의 놀이성, 친사회적 기술, 또래관계 전략 등으로 접근해왔으나 앞으로는 또래 상호작용 의례의 종류와 그 가치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민들레 반 아이들이 또래 상호작용 의례를 통해 경험한 강렬한 즐거움의 정서와 연대감은 ‘우리’의 정서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반’이라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한국인의 ‘우리의식’은 ‘정’을 느낄 때 생겨나고, 정은 아껴주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정을 느끼면 상대가 ‘우리’로 경험된다(최상진, 1997). 정계숙 등(2018)은 정(情)과 우리의식에 기반한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구현방안으로, 이를 움트게 할 수 있는 의례의 개발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학교의 독특한 문화를 반영하는 상징이나 집단놀이, 식문화 행사의 향유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의례들은 놀이와 이야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Mortlock, 2015)에서 우리는 다문화교실에서 아이들의 놀이와 이야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와 놀이의 흐름 속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무궁한 상상력과 창의력, 관계 맺음 등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교사는 다문화유아교실에서 아이들이 관계맺음을 위해 만들어 낸 놀이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상징과 의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교사의 다문화적 태도나 신념이 아닌 모든 유아들의 목소리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교사의 따뜻한 공감과 겸손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교사와 아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이 다문화가정 유아와 모든 유아들에게 교실생활의 질서와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즐거움과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실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생활하는 하나의 교실을 대상으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과 교실 규칙과 의례들 속에서 유아들의 심층적인 상호작용과 상징, 그 속에서 공동체적 의미를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앞으로 교실 의례를 통한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의 메커니즘과 실행연구를 통해 의례의 교육학적 가치와 다문화교육공동체 실현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견주연 (2013). 다문화 유아교실을 만들기 위한 협력적 실행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수연 (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96-124.
- 고미숙 (2014). 정(情) 윤리의 정립: 배려 윤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6(2), 1-29.
- 교육과학기술부 (2007).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 김영옥 (1998). 반편견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반편견 교육과정을 통한 인간교육. 제12회 한국어린이육영회 유아교육학술대회 자료집, 65-98.
- 김영옥 (2002). 유아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모델개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6(2), 5-38.
- 김은영, 문무경, 김문희, 박수연 (2010).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

책연구소.

김희태, 권영덕 (2007).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의 적응과 변화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95-117.

다누리통계포털 (2020).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기본현황.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71&refGroup=4>에서 2020년 5월 17일 인출.

다누리통계포털 (2020).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menuSeq=295&pageSeq=289&refGroup=4>에서 2020년 5월 17일 인출.

박미경, 이승연 (2008).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다문화교육의 개념, 실천형태 및 실천의 어려움. 유아교육연구, 28(2), 5-27.

박찬옥, 황지영 (2017). 다문화가정 유아의 어린이집 교실적응을 위한 실행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4, 141-195.

박화순 (2018). 유아교사가 인식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발달수준이 유아교육기관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다문화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법무부 (2019). 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2019년 1월 29일자.

서정애 (2017). 인권지향적 유아 다문화교육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반편견교육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현 (2010). 농촌지역 병설유치원 다문화가정 유아의 생활과 교사의 가르침-다문화가정 유아가 다수 취원한 유치원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0(6), 195-221.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손유자 (2017). 다문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일상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모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지숙 (2011). 다문화 교실에서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유아교사의 교수실천.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87-108.

염지숙 (2013). 누리반 유아들의 다문화 교실공동체 만들어가기. 유아교육연구, 33(6), 137-163.

오문자, 이방실, 이유나 (2012). 공동체 문화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만 3세 유아들의 적응 과정. 유아교육학논집, 16(1), 449-472.

오영희 (2011). 다문화가정 유아의 보육시설 초기적응에서 갈등원인 분석: 놀이상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1), 39-58.

윤갑정 (2011). 유아교사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 실태 및 교사연수 요구도. 유아교육학논집, 15(6), 63-87

윤갑정 (2012). 다문화교육을 위한 유아교사연수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영유아보육학, 71,

- 19-51.
- 윤갑정 (2015). 유아 다문화학습 공간 구성 방향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10(1), 87-111.
- 윤갑정 (2016). 유아교육현장에서 의례의 재발견: 그 개념과 활용. *문화예술교육연구*, 11(4), 23-46.
- 윤갑정 (2020). 교실의례를 통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급공동체 형성과정. *열린유아교육연구*, 25(2), 21-51.
- 윤갑정, 고은경 (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 윤갑정, 김미정 (2010). 다문화시대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0(3), 169-194.
- 윤갑정, 이병준 (2014). 유아교육연구에서의 의례적 접근: 주제와 관점. *문화예술교육연구*, 9(1), 43-60.
- 윤갑정, 손환희 (2018). 다문화가정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3(3), 81-109.
- 이은숙, 박형신 (2017).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거부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4), 759-777.
- 정계숙, 박화춘, 구신실, 김효정, 박희경, 손환희 (2018). 정(情)과 우리의식에 기반한 따뜻한 교육공동체의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849-873.
- 정계숙, 윤갑정, 박희경 (2016). 따뜻한 유아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성원의 공통 핵심 역량 요소 탐색. *교사교육연구*, 55(2), 253-270.
- 정대현, 장지영 (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과 실제. *유아교육학논집*, 13(1), 309-328.
- 최상진 (1997). 합성어 의미형성의 유기체적 관계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1, 155-170.
- 한대동(2004). 배움과 돌봄을 위한 학교공동체 실천모형 탐색. *효원교육포럼자료집*, 5-18.
- 행정안전부 (2018). 외국인주민수 186만명, 총인구 대비 3.6%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7.11.1기준) 조사결과 발표. 2018년 11월 2일 보도자료.
- Bhabha, H.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ogdan, R. C., & Biklen, S. K. (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Boston: Pearson.
- Charney, R. (1997). *Habits of goodness: Case studies in the social curriculum*. Greenfield, Mass: Northeast Foundation for Children.
- Charney, R., Clayton, M., & Wood, C. (1997). *The responsive classroom: Guidelines*. Pittsfield, Mass: Northeast Foundation for Children.
- Collins, R. (2004). *Interaction ritual chains*. 진수미 역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

슬. 서울: 한울아카데미.

- Fite, K. E. (2005). *What shines' and what doesn't in training teachers to use technology*. Paper presentation at the 2005 Texas Computer Education Association.
- Fite, K. E., & Garcia, J. L. (2007). A perspective on ritual: Toward a direction for revitalizing learning communities.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2(1), 75-84.
- Ladson-Billings, G. (1992). Culturally relevant teaching: The key to making multicultural education work. In C. Grant. *Research and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pp.106-121). PA: Falmer.
- Lazarus, A. A. (1976). *Multimodal therapy*. New York, NY: Springer.
- Maloney, C. (2000). The role of ritual in perschool setting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7(3), 143-150.
- McLaren (1987). The anthropological roots of pedagogy: the teacher as liminal servant. *Anthropology and Humanism Quarterly*, 12(3&4), 75-85.
- Michaels, A. (2012). Performative tears: emotions in rituals and ritualized emotions. In A. Michaels, & C. Wulf (2012). *Emotions in rituals and performances. South asian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rituals and performativity* (pp.29-40). Connaught Place, New Delhi: Routledge.
- Mortlock, A. (2015). Toddlers' use of peer rituals at mealtime: symbols of togetherness and other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23(4), 426-435.
- Mullis, F., & Fincher, S. F. (1996). Using rituals to define the school community.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30(4), 243-251.
- Skutil, M., Jandosova, L., & Makovickova, V. (2012). The use of rituals at primary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Sciences*, 9(2), 1476-1484.
- Wulf, C. (2012). Memory, mimesis and the circulation of emotions in rituals. In A. Michaels, & C. Wulf (2012). *Emotions in rituals and performances. South asian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rituals and performativity* (pp.78-92). Connaught Place, Nw Delhi: Routledge.
- Zita, J., & Stasova, L. (1999). *Sociologie pro sochalni pracovníky*. Hradec Kralove: Gaudeamus.

국문초록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실의 규칙과 의례

윤 갑 정

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실의 규칙과 의례들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 연구 현장은 K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만 5세 반 다문화유아교실이다. 이 학급은 몽골계 한국인 남아 한 명을 포함한 남아 8명, 여아 12명, 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료 수집은 교실참여관찰과 교사, 다문화가정 유아, 다문화가정 어머니, 원감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내용과 의미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IRB 심의 후에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실 규칙과 의례는 첫째, '교실공동체의 질서와 구성원의 역할을 규정하는 규칙과 일상의례'로 여기에는 '매일 만나고 헤어질 때의 명품인사', '매주 월요일 아침 기도', '우리 반의 규칙', 그리고 '이야기나누기 시간의 경청자세 찬트'가 포함되었다. 둘째,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또래 상호작용 의례'로 여기에는 '친구를 놀이로 부르는 구호', '신나는 생일파티', '친구의 장난을 흉내 내기'가 포함되었다. **논의 및 결론:** 연구결과, 교실 규칙과 의례들이 교실생활의 질서와 안정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즐거움과 '우리'의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문화유아교실공동체 형성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교실공동체, 규칙, 의례, 다문화교육, 유아

투고일 : 2020. 05. 30. / 심사일 : 2020. 06. 05. / 게재확정일 : 2020. 06. 25.